

경남 인터넷불교방송국 10월 개국

WWW.108korea.com...이사장 지성스님

육천사 등 50여 사찰 참여 사이버 포교

경상남도 소재 쟁계사, 해인사, 통도사의 50여 말사들이 인터넷 불교방송국을 만든다.

경남인터넷불교방송국(www.108korea.com) 개국준비위원회는 8월 31일 경남 하동청년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10월까지 인터넷방송을 개국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그간 인터넷 불교방송은 유력 사찰과 불교단체, 불교업체에서 개국했지만 지역 사찰이 힘을 합쳐 포교를 위한 인터넷 방송 매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명의 발기인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고문에 쟁계사 조실 고산스님과 해인사 원로수좌 도

견스님, 이사장에 고성 육천사 주지 지성스님, 개국준비위원장에 고성 계승사 주지 법진스님, 사장 겸 방송국장 김종일(주)인터넷불교정보(www.korea108.com) 대표를 선임하고 방송국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경남인터넷불교방송국의 이사를 사암 주지 10여 명으로 구성하고, 개국전까지 50여 사찰을 후원사찰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방송편성과 촬영 및 제작은 인터넷 불교정보 웹개발팀과 PNI 영상제작팀이 맡을 예정이다.

경남인터넷불교방송은 뉴스, 불교강좌, 영상법문, 문화예술, 음악, 다큐멘터리, 특별기획전, 방송이야기 등



◀내달중 개국하는 경남인터넷불교방송의 초기 화면.

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적으로 불심이 강한 부산, 경남지역 불자들의 신행과 문화생활을 이끄는 사이버 포교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사장에 내정된 육천사 주지 지성스님은 "사부대중의 성지이자 문화유산인 사찰을 보호하고 영남 불교

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역 포교매체가 필요하다"며 "50여 사찰 스님들의 뜻을 받아들여 지역 불자들의 유익한 불교신행의 길잡이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청담정보고 조선족 돕기

컴퓨터서적등 기증키로

불교종립학원인 평택 청담정보통신고(교장 이근위)가 연변 조선족 동포들에게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담정보통신고는 최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국땅에서 민족문화를 계승, 보존해 나가고 있는 연변 동포들의 생활상을 전해 듣고 컴퓨터 등 전문서적과 교양서적 수만권을 모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지난해부터 정보통신특성화 고교로 전환되면서 정보통신, 신간서적 등을 제외한 일반 교양서적들의 이용률이 낮아, 이 책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국에 사는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조선족 돕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여주교도소 관음상 점안

여주교도소는 6일 여주교도소 구내 대운동장에서 관세음보살상 점안식과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번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은 지난 7월 15일 수원교도소가 여주교도소로 신축, 이전하면서 여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회(회장 성무스님)와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본말사 주지 스님들의 원력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자 조성된 것이다.

이날 법회에는 용주사 교무 성무스님 등 불교분과위원 스님들과 신도 100여명, 불자 재소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러' 달라이라마 입국 거부

중국 관계개선 영향인듯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의 정산에 이어 재가 불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인 불자들의 마음을 다지는 한편 하루 자비의 싹 모으기 운동을 벌여 팔재계의 구체적 실천을 이끌어 내며 근검절약과 생명사랑의 정신을 일깨우게 된다.

성재도 연합회 사무국장은 "판관회의 정신을 이어 재가 불자들이 마음을 맑히는 수행으로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여 신심을 돈독히 하는 것은 불교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판관회 봉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아시안게임 성공발원 팔관회

부불련 23일 해운대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23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회 기원 팔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팔관회는 신라시대부터 행해지던 불교의식으로 운동을 설치하고 향등을 달아 재가 신도들의 마음을 청정하고 그곳을 방문하여 공덕을 쌓는 제의이다.

그러한 전통 불교의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팔관회는 팔재계 지키기 운동, 2002년 아시안게임 홍보 및 성공개회 기원, 불교전통 의식 팔관제 봉행, 국악과 함께 하는

천불공양, 연등 공양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수륙고혼을 천도하는 영가천도식에 이어 계율 법회를 열어 모든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는 한편 하루 자비의 싹 모으기 운동을 벌여 팔재계의 구체적 실천을 이끌어 내며 근검절약과 생명사랑의 정신을 일깨우게 된다.

성재도 연합회 사무국장은 "판관회의 정신을 이어 재가 불자들이 마음을 맑히는 수행으로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여 신심을 돈독히 하는 것은 불교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판관회 봉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부산 신광사 7인 큰스님 초청법회

18~24일 개원법회 기념

신광사에서는 개원법회로 18일부터 24일(7일간)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7인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18일 정락스님(불교와 효, 전 포교원장) △19일 인환스님(신앙의 장, 전 동국대교수) △20일 무진장스님(대승불교, 전 포교원장) △21일 보각스님(근본불교, 승가대교수) △22일 모주스님(화엄사상, 동국대교수) △23일 영도스님(지장신앙, 건봉사주지) △24일 설호스님(법화사상, 문) (051)467-5363

대구 법광사주지 실상은 10일 정무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산분원 신광사(주지 실상)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신광사에서는 개원법회로 18일부터 24일(7일간)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7인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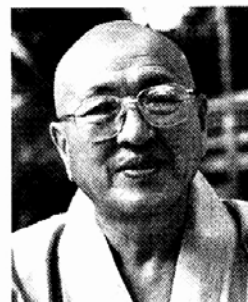
△18일 정락스님(불교와 효, 전 포교원장) △19일 인환스님(신앙의 장, 전 동국대교수) △20일 무진장스님(대승불교, 전 포교원장) △21일 보각스님(근본불교, 승가대교수) △22일 모주스님(화엄사상, 동국대교수) △23일 영도스님(지장신앙, 건봉사주지) △24일 설호스님(법화사상, 문) (051)467-5363

김재경 기자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출-재가 한마음으로 '보시하는 삶' 지향"

밀양사암련 태우스님



"밀양은 사명대사의 생가가 있는 호국성지입니다. 호국 불교의 기틀을 다졌던 사명대사의 뜻을 받들어 충효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불교의 발전을 꾀하는 포교사업을 펼 것입니다."

매년 표충사에서 치러지는 사명대사의 춘계 향사를 주관하는 것을 비롯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등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불교를 표방해 온 밀양시사암련합회 회장 태우스님(부은사 주지)은 "부모와 나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어 있다"며 호국불교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전했다.

태우스님이 평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보시하는 마음'이다. 그는 "보시하는 마음"이 고 있으며, 합

회 성격의 불교발전연구회와 청년회, 합창단 등 재가 조직이 합쳐진 모임이다. 청년회는 10년째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열어 동심에 불심을 심고 있다. 창립 6주년을 맞은 불교발전연구회 역시 매월 법회, 불교교리 공부로 신심을 다지는 한편 매월 회보 발행으로 불법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태우스님이 평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보시하는 마음'이다. 그는 "보시하는 마음"이 고 있으며, 합

고 있으며, 합

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 매년 초파일이나 경로잔치 등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84년 지혜스님을 초대회장으로 창립된 밀양시불교사암련합회는 초창기부터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돕기를 이어오면서, 현재는 100여개 회원사찰이 동참하고 있으며 불교회관 건립이라는 숙원사업을 남겨놓고 있다.

또한 밀양여고 심보정 학생의 백혈병 수술비를 지원했으며 종립학교인 흥제중학교에도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7월 개교 53주년을 맞이한 흥제중학교의 기념식에 참석, 장학금을 전달한 태우스님은 "교육불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매년 여름 사암련 산하의 청년회가 주최하고 있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도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스님은 "신행단체 사무실, 종단 사무실, 법회공간, 예식장 등으로 활용될 불교회관 건립에 밀양 불교의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며 "호국성지인 밀양 불교의 터전이 될 불교회관 건립에 승가와 재가가 뜻을 함께 하고 있으니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밀양시사암련합회는 거사림

밀양=천미희 기자



◀신라불교문화 중흥에 나설 예정인 불국사문화회관 전경.

천년 신라불심 꽃피운다

불국사 경주에 불교문화회관 21일 열어

유치원·법당 등 갖춰

천년고도 경주의 불교문화를 책임질 불교문화센터가 문을 연다.

불국사주지 성태는 21일 오전 10시 경주시 성건동에 소재한 불국사 문화회관 3층 대강당에서 불국사 문화회관 회향식 및 월산 큰스님 4주기 다례식을 거행한다.

50여여원을 들인 불국사의 숙원사업으로서 2년여 공사 끝에 낙성식을 갖게 된 불국사 문화회관(관장 성태)은 686명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 연건평 1434평 규모의 대형 불교회관, 경주시내

의 불교사회교육원이 불교교양대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포교에 치중한다면, 문화회관은 문화포교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창달에 기여할 전망이다.

1층에 불국유치원(영원 150명), 2층에 사무실과 강의실 및 전통찻집, 불국사합창단 및 선재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3층에 대강당 겸 다목적실(영상·음향시설), 4층 법당(3000불 조성)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회관은 각종 법회와 불교강연은 물론 연극, 영화, 음악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054)746-2211

김재경 기자

無病長壽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원년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원년수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정에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덧님, 오님, 면모, 향선, 턱받이, 면포 (총 20종)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셔마 치마, 이불, 요정에 베개, 원삼띠, 면모, 악수 버선, 오님, 턱받이, 면포 (총 18종)

불자들은 모두 우한 특별한 기쁨이-
동자대 미사신으로
진정한 원년수의를 운함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종 명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별혜택
상예-이름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락스 보관함
상예-이름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락스 보관함
상예-이름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락스 보관함, 상례완구 세트증정
수취-이름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락스 보관함, 상례완구 세트증정
안동로-이름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락스 보관함, 상례완구 세트증정

※ 원년수 10% 추가됩니다.
※ 원년수는 인공과 시안에 전격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 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예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할 방생 어디가 좋을까!

탐영제 방생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삼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진인 마이산 탐사
☎ 063)433-2900, 0303
432-0652, 0072